

보도 일시	2022. 12. 1.(목) 09:00	배포 일시	2022. 12. 1.(목) 09:00
담당 부서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	책임자	과장 김나나 (044-203-3322)
		담당자	사무관 장새미 (044-203-3327)

## 도쿄와 하노이를 매료시킬

### 한국 미디어예술(미디어아트) 콘텐츠 공개

- 주일·주베트남한국문화원 외벽에 초대형 엘이디 전광판 구축해  
역동적인 한국문화 콘텐츠 상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장호, 이하 해문홍)은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주베트남한국문화원(원장 석진영)과 함께 12월 1일(목)부터 주일한국문화원(도쿄)과 주베트남한국문화원(하노이) 건물 외벽에 한국의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과 양국 간 문화 교류의 모습을 표현한 미디어예술(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상시 상영한다.

해문홍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실감 나고 매력적인 한국문화 콘텐츠를 구현해 한국 기술과 문화를 현지에 알리는 한편, 한류 확산 거점으로서 문화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각 문화원은 건물 외벽에 고품질의 초대형 엘이디(LED) 전광판을 설치해 생동감 넘치고 입체감 있는 미디어예술 콘텐츠 총 25종을 선보인다. 특히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의 경우 옥상에 7자 형태의 엘이디(LED) 전광판을 설치해 평면을 입체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압도적인 시각적 몰입감을 선사한다.

콘텐츠 25종은 한국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영상, 양국의 주요 명소, 전통 소품 등을 활용해 양국 간 활발한 교류를 표현하는 영상 등으로 구성했다. 한국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영상은 화려한 서울의 전경과 도심 속 5대 궁궐 중 하나인 경복궁의 모습부터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지닌

태권도의 움직임 등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담았다. 아울러 양국의 주요 명소를 하나의 화면에서 함께 보여주고, 양국의 인사말을 타이포그래피\*와 조명판(네온사인)으로 구현해 양국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서, 활자의 서체나 글자의 배치 등의 구성 및 표현

또한 일본과 베트남을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예술 작가인 김혜경, 조세민, 김재욱, 빠키 등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상호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조세민 작가는 한국과 일본의 토속문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캐릭터와 일본에서 사랑받는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등장시켜 양국 간 친밀한 소통을 표현했다. 그는 “한국문화를 일본에 소개하는 일방적 느낌보다는 양국의 ‘만남’과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했으며, 코로나19로 뜸해졌던 양국의 문화교류가 재개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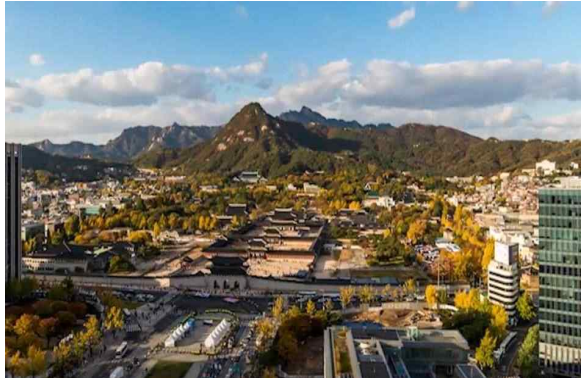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김재욱 작가 또한 “베트남과 한국의 주요 명소를 하나의 화면 속 좌우에 담고, 가운데에 ‘교류의 장’을 상징하는 바다와 그 위를 떠다니는 배를 표현해, 다른 문화와 환경을 가진 두 나라가 서로 연결된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다.”라고 작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문홍 정책 담당자는 “이번 재외한국문화원에서의 미디어예술 콘텐츠 상영은 현지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매력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미디어예술 콘텐츠 주요 목록

따로 붙임 주일한국문화원,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외관 사진



순번	내용	영상 사진
<b>&lt;양국 공통 영상&gt;</b>		
1	<p>경이로운 한국 풍경</p> <p>드론을 통해 촬영한 서울 광장, 경복궁 등 한국 서울의 웅장한 도시 풍경과 제주도 한라산 등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 볼 수 있다.</p>	
2	<p>역동적인 도심 속 한국 궁궐</p> <p>고유의 전통과 도시적 특성이 공존하는 한국. 역동적인 도심 속 한국의 전통 궁인 경복궁의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다.</p>	
3	<p>한국의 태권도</p> <p>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지닌 태권도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화려한 CG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p>	
4	<p>민화를 활용한 한반도 사계절</p> <p>하늘에서 한반도의 사계절과 자연을 바라보는 듯한 초현실적인 비주얼의 영상으로, 초근접 촬영 기법과 한국의 전통 민화를 접목하여 표현하였다</p>	

<일본 특화 영상>

1	<p>양국 대표 랜드마크</p> <p>양국의 주요 명소를 열차 창문 넘어 여행자의 시선으로 소개하여 실제 여행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양국 주요명소를 각각 다른 프레임의 화면에서 보여주다 여행의 끝에 한 프레임 속 같은 공간으로 배치함으로써 양국의 교류와 유대감을 표현한다.</p>	
2	<p>양국의 주요 인사말</p> <p>언어는 한 나라의 문화 집합체로, 간판은 그 나라의 언어를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는 매체 중 하나이다. 타이포그래피와 화려한 네온사인을 차용하여 양국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보여준다.</p>	
3	<p>양국 전통 오브제 표현</p> <p>한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자연요소와 전통 오브제를 입체 공간 속에 배치하여 문화적 교류와 화합을 표현했다. 전통적인 오브제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태와 색감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영상이다.</p>	
4	<p>한국 미디어예술 작가(김혜경) 작품</p> <p>조선의 3대 궁이라 여겨지는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의 아름다움과 전통 공예와 회화 안에 숨겨져 있는 동아시아 전통적 가치와 아름다운 문화적 상징 기호들을 디지털 미디어로 강조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미술 속 닻음과 대립되는 요소들을 주고받으며 양국 관계의 사이, 그리고 하나 됨을 표현하였다.</p>	
5	<p>한국 미디어예술 작가(조세민) 작품</p> <p>한국과 일본에 사는 소녀와 고양이가 상상 속에서 만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그리며 한일교류를 표현하였다. 조세민 작가의 대표 캐릭터 미미뽀와 고양이가 각각 한국과 일본의 소녀와 고양이로 재탄생 되었다.</p>	

<베트남 특화 영상>

<p>1</p>	<p>양국 대표 랜드마크</p> <p>양국의 주요 명소를 열차 창문 넘어 여행자의 시선으로 소개하여 실제 여행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양국 주요명소를 각각 다른 프레임의 화면에서 보여주다 여행의 끝에만 프레임 속 같은 공간으로 배치함으로써 양국의 교류와 유대감을 표현한다.</p>	
<p>2</p>	<p>양국의 주요 인사말</p> <p>언어는 한 나라의 문화 집합체로, 간판은 그 나라의 언어를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는 매체 중 하나이다. 타이포그래피와 화려한 네온사인을 차용하여 양국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보여준다.</p>	
<p>3</p>	<p>양국 전통 오브제 표현</p> <p>한국과 베트남을 상징하는 자연요소와 전통 오브제를 입체 공간 속에 배치하여 문화적 교류와 화합을 표현했다. 전통적인 오브제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태와 색감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영상이다.</p>	
<p>4</p>	<p>한국 미디어예술 작가(김재욱) 작품</p> <p>양쪽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각 주요 도시 명소를 콜라주하고 가운데에 '교류의 장'을 상징하는 바다를 구현하여 양국 간 교류를 표현했다.</p>	
<p>5</p>	<p>한국 미디어예술 작가(빠키) 작품</p> <p>한국과 베트남 문화 교류 속 '친숙함'과 '낯설'을 그래픽 감성으로 연출하였다. 양국에 큰 유대감을 가져다준 스포츠인 '축구'를 컨셉으로 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랜드마크를 표현하였다.</p>	